

동북아 시대 서울의 역할과 비전

- 한국경제는 그 동안 양적으로는 성장하였지만 심화되는 국가간 경쟁에서 우월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한 성장동인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 있음
 - 특히 일본의 선점과 중국의 추격 사이에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위기에 처해 있음
- 참여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‘동북아 경제중심의 실현’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중임
 -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서울도 새로 형성되는 동북아 환경에서 우리나라의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중임
- 동북아시대를 맞아 새로이 요구되는 서울의 비전과 역할을 검토하고, 아울러 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자 함

동북아 경제중심이란

- 동북아에 부여된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이점과 경제적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,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외국기업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동북아지역의 비즈니스 거점이 되는 것이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의 요체임
 - 중국이 풍부한 인적자원과 광대한 잠재시장을 바탕으로 하여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, 세계적 기업, 자본, 기술, 인력 역시 동북아로 집중되는 등 전략 실현의 여건이 성숙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
 - 동시에 한·중·일을 중심으로 역내교역이 증가하고 있으며, 실질적인

분업(경제통합)이 진전되는 상황에 있으므로 이러한 기회의 활용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음

- 이러한 동북아의 환경에서 우리나라가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접국가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세계수준의 서비스·재화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임
 - 물류·금융·IT산업·R&D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을 찾을 수 있지만 우리의 현안에 부응하며, 또한 기반과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지역적 특화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

동북아시아 시대 서울의 역할

-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북아는 경제규모가 커지고 기능이 다양해짐에 따라서 금융수요가 급속하게 증대되고 있으며, 기술혁신을 위한 환경조성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
 - 따라서 금융산업의 발전과 혁신창출에 필요한 여건이 갖추어진 서울이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함
 - 세계도시체계의 형성으로 서울의 역할과 서울의 경쟁력이 이전에 비하여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금융산업 발전과 지식·정보의 집적은 서울의 경쟁력 제고와도 부합하는 전략임
- 따라서 금융·지식산업의 거점화가 서울이 지향해야 할 목표이며, 이를 위하여 대외경쟁력을 갖춘 금융비즈니스 환경조성과 역내 혁신역량의 강화가 필요함
 - 금융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진적인 금융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하며, 금융부문과 직·간접적으로 관련된 재무, 회계, 법률 등 생산자서비스업이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임

-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인력의 양성·유치, R&D 기능 제고, 산·학·연 네트워크 강화, 정보·지식·인력의 이동성(mobility) 제고가 필수적임
- 궁극적으로 서울이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다국적기업의 지역본사와 우수기업이 유치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의 어메니티도 제고해야 할 것임

동북아시아 경제거점 서울을 위한 정책방안

- 서울시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반시책들과 다국적 기업 아태지역 본부 및 국제금융기구의 유치 노력도 서울의 금융·지식산업의 허브 형성이라는 비전에 비추어 추진되어야 함
- 우선 정부와 서울시 등 공공부문은 금융허브로의 발전에 제약으로 나타나고 있는 국제수준의 금융·기업환경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
 - 외국계 금융기관 CEO가 지적한 바와 같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금융부문의 M&A와 구조조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
 - 은행에 대한 대출규제, 외환관리의 자유화, 정부정책의 투명성 및 일관성 제고가 필요하며, 나아가 국제수준의 영어소통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개선해야 할 것임
- 지식산업의 허브화는 우선 서울이 산업기반과 장점을 가지고 있는 IT산업의 발전, 나아가 IT 연관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임
 - IT산업의 클러스터 형성이 선결과제이며,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도록 산업의 집적화와 산·학·연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함

- 서울은 지식창출의 핵심인 IT산업의 인재풀(Pool)을 형성해야 할 것이며, 이를 매개하기 위한 ‘포럼’의 결성 등을 지원하도록 함
- 서울이 외국인투자자에게 매력적인 도시로서 부각되기 위해서는 서울만이 제공할 수 있는 어메니티를 강화해야 할 것임
 - ‘기업하기 좋은 서울’이라는 이미지와 컨셉이 수용되는 사회적 자본 (social capital)을 구축하도록 함
 - 지역의 고유성과 이미지를 반영한 문화축제와 이벤트 상품개발 역시 도시의 매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
- 동시에 참여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행정수도의 이전과 중추관리기능의 분산정책이 서울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역시 당면한 과제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임

정희수 . 서울경제신문 서울경제연구소장
hschung@sed.co.kr

서울경제 브리프 제10호와 제11호는 지난 6월 27일(금), 서울특별시청 태평홀에서 개최한 “『동북아 거점도시 서울』을 만들기 위한 심포지움”의 내용을 요약·편집하여 게재합니다.